

# 동신여고 정구팀 金

## 전국체전 32년 만에 단체전 패권

### 금메달 광주 11·전남 4개 추가

동신여고 정구팀이 32년 만에 전국체전 단체전 패권을 차지했다.

동신여고가 16일 대구자연과학고 정구장에서 열린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여고부 결승에서 경북관악여고를 3-0으로 꺾고 대회 정상에 올랐다. 1980년 창단 이후 32년 만에 이룬 전국체전 단체전 우승이다.

정구 단체전 우승과 함께 광주는 16일 금 11, 은 5, 동 7의 성적을 냈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금메달 소식이 이어졌다. 양궁 광주시청 기보배가 허윤정·이특영·박미경과 함께 여자일반부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개인전에 이어 2관왕이다.

여대부에서도 광주여대(김소연·안세진·이소현·김연지)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70m 우승자인 안세진은 2관왕이 됐다.

김덕현(광주시청)도 멀리뛰기에 이어 세 단뛰기 우승으로 2관왕 대열에 합류했다. 이성(광주시청)은 높이뛰기에서 금메달을 수확했다.

런던올림픽에서 낙마사고의 아픔을 겪은 황우진(한국체대)은 근대 5종 남자일반부 경기에서 1위를 차지했다.

올림픽 사상 첫 체조 금메달의 주인공 양학선(한국체대)도 이번이 도마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김희호(한국체대)는 2위에

오르며 광주가 금·은을 가져왔다.

레슬링에서는 광주체고 이명진(자유형 63kg)과 이승동(자유형 85)이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태권도 남자 일반부 87kg에 출전한 남윤배(가스공사)도 금빛 발차기에 성공했다.

투혼의 동메달도 있었다. 육상 10,000m의 김수길(광주육상연맹)은 9바퀴를 남겨두고 스피이크가 벗겨지는 약재를 만났지만 맨발로 역주를 하며 투혼의 동메달을 가져왔다.

전남은 역도·볼링·요트에서 금메달 4개를 추가했다. 5개의 은메달과 4개의 동메달도 더해졌다.

역도 강팀 보성군청이 두 개의 금메달을 책임졌다. 김경수가 85kg 인상과 합계에서 금메달을 들어올리며 2관왕이 됐다. 앞선 14일 여자 용상 53kg의 장슬기에 이어 보성군청의 세 번째 금메달이다. 김경수는 용상에서는 은메달을 차지했다.

‘볼링 천재’ 최복음(광양시청)은 마스터스에서 금빛 스트라이크에 성공했고, 여수시청의 김태영과 윤현호는 요트 국제 470급에서 금빛 질주를 선보였다.

남고부 럭비 대표인 순천공고는 대구 상원고를 38-15로 꺾고 2년 연속 결승전 진출에 성공했다. 순천공고는 17일 충북체고를 상대로 금메달에 도전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시청 육상팀의 메달행진을 주도한 박태경, 임희남, 김민준, 김덕현(왼쪽부터).

## 광주시청육상팀 금·은·동 1역대 최고 성적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인들의 금빛레이스였다.

남자 허들 110m의 박태경, 단거리의 강자 임희남 그리고 도약종목의 자존심 김덕현, 국가대표 3인방의 선전 속에 광주시청 육상팀이 전국체전에서 금 7, 은 2, 동 1개의 역대 최고의 성적을 냈다.

사연 많은 이들의 금메달이다.

금메달 레이스의 스타트는 ‘말청’ 박태경이 끊었다. 13일 남자 허들 110m에 출전한 박태경은 11살 터울의 신에 포항시청 김병준을 0.18초로 누르고 대회 4연패에 성공했다. 지난해 대구육상선수권대회에서 세계의 높은 벽을 실감해야 했던 박태경은 아쉽게 돌아섰던 트랙에서 후배들의 거센 추격을 물리치고 감격의 우승을 차지했다.

박태경은 “13년째 광주에서 뛰면서 25번째 전국체전 메달을 획득했다”며 “팀의 만행으로서 책임감이 있지만 동생들이 알아서 자기 운동도 잘하고 관리도 잘해줘서 즐겁게 운동을 하고 있다. 질주는 끝나지 않았다. 금메달 두 개는 더 따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두 번째 메달은 임희남의 몫이었다. 도평파문으로 마음 고생을 했던 임희남은 100m 금빛 질주로 마음의 짐을 덜었다. 임희남은 폭발적인 막판 스피드로 전세를 뒤집으며

대구 스타디움을 술렁이게 했다. 14일에는 200m까지 제패하면서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임희남은 “운동을 그만둘 생각까지 할 정도로 힘든 시기였다. 나 때문에 심재용 감독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동료들에게도 미안했다. 그 미안함을 덜고 싶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비로소 활짝 웃었다.

금메달은 김덕현에게로 이어졌다. 멀리뛰기에 출전한 김덕현은 7m67을 넘으며 조선대시절을 포함해 대회 5연패를 이뤘다. 김덕현은 16일 세단뛰기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며 2관왕이 됐다.

김덕현은 “멀리뛰기 경기 도중에 전광판으로 형들이 경기를 하는 것을 봤다. 다들 너무 잘해줘서 기쁘기도 했고 나도 잘해야겠다는 부담감이 들었다”며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후 대구 육상선수권대회 그리고 올림픽으로 이어지는 3단계 계획이 있었는데 부상으로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 대구에서 부상으로 중간에 실려나가기도 했고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는데 금메달을 따서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들 외에 여자 마라톤의 노현진, 높이뛰기의 이성이 이번 대회 광주시청팀 금메달리스트 대열에 합류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금메달 없어요? 하하하” ... 광주 양학선 도마 1위 하고도 금메달 못 건 까닭은?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셋째날인 16일 오후 대구 달서구 신당동 계명체육관에서 기계체조 종목별결승이 끝난 뒤 입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학선의 목에는(사진 원 내) 금메달이 보이지 않는다. /연합뉴스

### ■ 전국체전 진풍경

2012 런던올림픽에서 한국 체조 역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도마의 신’ 양학선(한국체대)이 제93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 대표로 출전한 양학선은 16일 대구 계명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기계체조 남자일반부 종목별 결승 중 도마에서 1, 2차 시기 평균 16.262점을 획득, 금메달을

### 도마 압도적 점수로 금메달

### 공동금메달 많아

### 이미 받은 메달 다른 선수에

차지했다.

광주체고 1학년이 출전한 제89회(2008년) 대회에서 3관왕(단체종합·개인종합·도마)에 올랐던 양학선은 이듬해에도 2관

왕을 차지했고, 지난해와 올해는 도마에서 정상에 올랐다.

이날 경기에서 양학선은 지난 14일 단체 및 개인종합 경기와 마찬가지로 1차 시점에서 ‘여 2’(도마 쪽으로 힘차게 달려와 양손으로 도마를 짚은 뒤 공중으로 몸을 띄워 두바퀴 반을 비틀어 내리는 기술), 2차 시기에서는 ‘쓰카하라 트리플’(도마를 옆으로 짚고 세 바퀴를 비틀어 도는 기술)을 선보였다.

두 차례 모두 착지가 불안했지만 1차 시기에서는 16.450점, 2차 시기에서는 16.075점을 받아 경쟁자들을 압도했다.

하지만 양학선은 금메달을 반납해야 했다. 이유는 이번 대회에서 공동금메달이 많이 탈상해 예상한 금메달 개수보다 많은 메달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기계체조 종목별결승 시상식에서는 이미 받은 선수의 메달을 다른 선수에게 수여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연합뉴스

# KIA 마무리 캠프 “지옥에 다녀올게요”

## 50명 오키나와로 출국

‘호랑이 군단’이 4강 탈락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2013시즌 담금질을 시작한다.

KIA 타이거즈가 17일 일본 오키나와로 출국해 내달 30일까지 45일간 마무리 훈련을 실시한다.

마무리 훈련에 참가하는 선수단은 선동열 감독 등 코칭스태프 11명과 예슬 피칭을 선보였던 서재용을 비롯한 투수 16명, 안방마님 김상훈을 포함한 야수 23명 등 총 50명이다.

이중 김진우는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26일 캠프에 합류하고, 전국체전에 참가한 한국대 좌완 손동욱과 포수 이흥구, 동의대 내야수 박효일은 23일 출국한다.

재활훈련 중인 최희섭과 이범호, 군입대 문제가 남아있는 나지완은 11월 초에 일본행 비행기에 오른다.

집을 꾸린 선수단은 16일 구단 버스를 통해 광주를 떠났다.

자신감 회복, 체력 키우기, 살아남기 등 개인 목표는 다르지만 떠나는 ‘호랑이 군단’의 마음가짐은 하나였다. 수확보다는 아쉬움이 많았던 시즌이었던 만큼 ‘독한 훈련’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돌아오겠다는 것이었다.

내야수 안지훈은 “마무리 캠프에서 수비 훈련을 중점적으로 할 것 같다. 가서 자신감



일본으로 마무리 캠프를 떠나는 KIA 선수단이 16일 출발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을 회복해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볼펜의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좌완 양현종도 ‘병에 회복’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는 각오다.

양현종은 “올 시즌은 얻은 게 하나도 없다. 야구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많이 던지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프로에서 첫 시즌을 보낸 박지훈과 홍성민에게는 ‘체력’이 목표다. 몸무게도 늘릴 생각이다.

박지훈은 “후반기에 너무 좋지 않았다. 체력이 가장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체력을 중점적으로 키우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 명단

▲감독: 선동열 ▲코칭스태프: 이순철, 조규제, 정희열, 김태룡, 김종국, 김병호, 광현희, 신동수, 홍세완, 하나마스 ▲투수: 서재용, 윤석민, 이정훈, 한승희, 김성계, 오준형, 박지훈, 김중훈, 양현종, 박경태, 진해수, 홍성민, 김윤동, 박기철, 김진우, 손동욱 ▲포수: 김상훈, 차일목, 이상우, 이흥구 ▲내야수: 박기남, 김주형, 김선민, 안지훈, 홍재호, 황정립, 윤완주, 최희섭, 이범호, 고영우, 박효일 ▲외야수: 김상현, 이준호, 최훈락, 이용규, 이준환, 조영훈, 최준식, 나지완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잔류군은 남해로 손가락 검진 한기주 미국행

떠나는 이와 남는 이들의 표정이 엇갈렸다. 16일 무등경기장 그라운드 밖에서는 짐을 꾸리는 손길이 분주했다. 45일간의 대장정을 위해 챙겨온 장비와 옷가지 등을 트럭에 옮겨 싣느라 바쁜 오후를 보낸 사복 차림의 이들은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에 가는 선수단이다.

지옥 훈련이 예고되어 있지만 1차 경쟁에 살아남은 만큼 또 부족한 게 많았던 시즌을 잘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밝은 표정들이었다.

그라운드에는 진한 아쉬움이 남았다. 부상과 부진으로 캠프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들은 유니폼을 입고 구슬땀을 흘렸다. 광주에 남은 잔류군은 내달 1일 남해에 캠프를 차리고 겨울을 나게 된다.

일본 대신 미국으로 떠난 이도 있다. 투수 한기주가 손가락 검진을 위해 16일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지난 시즌이 끝난 후 한기주는 우측 세 번째 손가락 건초염(방아쇠수지증)으로 수술을 받았었다. 하지만 올 시즌 염증이 재발하면서 정밀 검진을 위해 미국행을 선택했다.

한기주는 18일 조브코리나에서 정밀 검진을 받은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기주는 “수술을 하고도 통증이 있어서 다시 검진을 하기로 했다. 어깨와 팔꿈치 등 계속된 부상으로 자신있게 내 공을 던지지 못했다”며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  |   |
|---|--|---|
| <p>가차표/항공권/승선권<br/>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p> <p><b>(주)대원여행사</b><br/>062)526-7000</p> <p>신세계백화점 사거리<br/>www.daewontour.com</p> <p>광주역 062)525-4835<br/>광주승정역 062)942-3376</p> | <p><b>무궁화호/당일<br/>최소출발 인원<br/>20명 이상</b></p> <p><b>한국민속촌/수원화성/수원행궁 기차여행</b></p> <p>수원화성의 꽃인 화성행궁은 1789년 정조가 팔달산 기슭에 세운 행궁이다<br/>우리나라 행궁중 가장규모가 크고 아름답다(657칸의 국내 최대 행궁)<br/>행궁이란 임금의 궁을 떠나 지역에 있을때 일도하고 잠도자던 시설을 말한다<br/>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자랑스런 우리의 문화재입니다</p> <p><b>출발일</b> 매주 토요일 / 08:20 광주승정역 출발</p> <p><b>여행비</b> 63,000원 (어린이: 47,000원)</p> <p><b>포함사항</b> 왕복 무궁화호 열차비, 현지차량비, 입장료, 여행자보험</p> | <p><b>KTX 왕복/당일<br/>최소출발 인원<br/>20명 이상</b></p> <p><b>임진각/제3땅굴/도라전망대 기차여행</b></p> <p>DMZ,안보관광은 우리가 마음대로 갈수없는 민간인 통제지역으로 실형된<br/>외국인/드라마 촬영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이 찾고있는 지역입니다</p> <p><b>출발일</b> 매주 토요일 / 07:30 광주역 출발</p> <p><b>여행비</b> 79,000원 (어린이: 62,900원)</p> <p><b>포함사항</b> 왕복 KTX 열차비, 현지차량비, 입장료, 식사비(중식 1회), 여행자보험</p> |
|---|--|---|